

지역 소식통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해담쌀' 추가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 '2024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추가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공공비축미곡 추가매입 품종으로 '해담쌀' 품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추가선정 심의회는 지난해 2월 23일 개최됐던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에서 신동진과 참동진이 선정됐지만, 12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창고에 보관하던 신동진 법에서 진균이 발생함에 따라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해 품종을 1개 확대(2개→3개)해 개설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해담쌀은 조생종으로, 밥맛이 좋아 농진청 선정 최고품질 쌀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공모 최우수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배려를 위한 '가족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도 인구정책 민간위원의 심사를 통해 김제시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고 추억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Mom이 든든 해피 워라벨 사업'과 관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가족 외식권을 지원하는 '아버보 해피워라벨 사업'의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가족친화기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기업 차원의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자체 확산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결식 취약계층에 따뜻한 밥한끼 제공

한국나눔연맹, '천사무료급식소 김제지소' 개관... 전북자치도내 최초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결식우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밥 한끼를 제공하는 '천사무료급식소 김제지소'가 문을 열었다.

시는 지난 22일 (사)한국나눔연맹(대표 안미란)이 지역 결식 우려가 있는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천사무료급식소 김제지소'를 22일 전북에서 최초로 성황리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중앙총재를 비롯해 지역 이원택 국회의원,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과 의원 12명,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남궁행원 센터장,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출신 가수 현숙의 축하공연과 다양한 볼거리 행사로 이뤄졌다.

김제 요촌동 일원(중앙로 147)에 마련된 천사무료급식소 김제지소는 결식 우려가 있는 70세이상 취약계층 노인 약 400여 명에게 따뜻한 설렁탕 한 끼를 나누기 위해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천사무료급식소는 (사)한국나눔연맹이 전국에서 10개소(서울 2,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2, 전북특별자치도(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시립의도시라배달, 어르신합동생신잔치, 무료효도관광, 아동양육시설지원을 해외에서도 무료급식과 고아원 운영, 빈민촌생필품지원, 우물과주기사업, 지붕개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결식우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밥 한끼를 제공하는 '천사무료급식소 김제지소'가 문을 열었다.

이번 천사무료급식소 김제지소 개관에 따라 종사자 14명 채용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1일 20여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연간 10억원 정도의 재정유입효과와 지역농산물 소비 증진, 전국나눔행사에 지평선쌀 소비연계 등 다양한 효과를 보게됐다. 또, 향후 후원물품과 효도관광 예술공연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천사무료급식소 유치를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실시해 요촌동 일원에 자리를 잡았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자원봉사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천웅 한국나눔연맹 중앙총재는 "김제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무료급식, 반찬 배달뿐만 아니라 향후 바자회, 효도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배고픔과 외로움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거점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한국나눔연맹에서 운영할 김제 천사무료급식소는 결식우려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혁신도시 입주기관, 단체와 들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 이서 광석제 들레길 만든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완주군이 혁신도시 입주기관, 단체와 손잡고 이서면에 위치한 광석제 들레길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22일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류입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이광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 지사장, 윤택성 이서면주민자치위원장, 김영백 이서면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들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석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인접해 있고, 설화공원, 노을공원과도 지척에 있어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다.

군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석제에 계단과 아자메트, 수변테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사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부지와 시설 사용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윤택성 이서면주민자치위원장은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늘 감사드린다"며 "광석제 들레길 조성으로 기관과 주민들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적극적인 의견을 주고, 협조해 준 기관과 주민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광석제가 이서면을 대표하는 새로운 휴식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소통 현장 행정 '눈길'

주요 사업장 방문 대책 논의

정성주 김제시장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정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콘텐츠가 있는 주민 편의형 휴게공간인 지평선 새마루를 방문해 입주관계자들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지평선 새마루는 국도 23호선에 20여년 동안 유희시설로 방치된 옛 동진강 휴게소를 김제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복합시설이다.

지평선 새마루 입주업체로 확정된 6개 업체대표들은 "개점에 앞서 시 관



정성주 김제시장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입주관계자들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계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준 정성주 시장에 감사드린다"며 "민선8기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19일,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사업 현장을 찾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과 교육공간 확보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정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 확보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고려한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타운 기능강화는 장애인 프로그램 공간 마련과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물증축 사업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정 시장은 현장행정을 마무리하며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처리하겠다"며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봄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농가 교육·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봄 채소가 많이 나오는 영농철을 맞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 완주군은 농가 대면 교육과 출하 전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잔류농약, 토양, 기숙분뇨 퇴·액비 검사 등 고품질 과학농업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안전관리센터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대응해 출하 전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출하 시기를 조정해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도 예방하고 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출범 이후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꾸준히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때는 현장에서 토양, 농산물, 농업용수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된 시료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안전관리센터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최신 동향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생산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대상 농가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290-3314)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